

평화를 원하거든 먼저 평화가 되어라.

- 교장 양희창

‘나는 26살의 젊은이지만 저 분에 비하면 늙은이구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지?’ 사티스 쿠마르는 아흔 살의 버트란드 러셀이 반핵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친구와 함께 평화의 순례를 떠납니다. 그는 2년 6개월 동안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거쳐 아메리카까지 약 6천 5백 마일을 오직 걸어서 여행을 합니다. 두 발로 걸으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대자연의 신비를 깨달으며 어머니 같은 자연에 귀 기울이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는 ‘슈마허 칼리지’라는 세계적인 생태학교를 만들고, 부엌과 도서관이 중심이 된 ‘하트랜드’ 학교를 세웠습니다. 하트랜드 학교는 간디학교를 처음 세울 때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했던 곳으로 교사들이 함께 모여 이 학교에 대해서 토론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 분은 고령의 나이에도 지금까지 세계적인 환경잡지를 만들어 오시면서 세계의 영성을 이끌어 가는 훌륭한 지도자 이시죠.

지난 달에 저는 한국을 방문하신 사티스 쿠마르 선생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먼 거리를 걸어서 세계를 여행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냐고 물었을 때 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을 때, 가도 가도 잠자리를 찾을 수 없을 때, 눈보라에 눈도 뜨지 못하고 헤맬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나는 걷고 있는가? 모든 걸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할 때 문득 길에서 만난 이웃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이 땅에는 생존을 위해 허덕이며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이 너무 많아, 그들에 비하면 나의 고통은 아무 것도 아니야. 평화를 위해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다면 그만한 행복이 없지”

그리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걸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들 중 어떤 이들에게는 이 작은 평화의 걸음이 일생을 인도하는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평화가,



물흐르고 꽃피는 자리
가뉘면 기쁨곳

간디청소년학교 평화순례 2004

“우리 걷는 걸음, 평화의 씨앗이어라”

1. 제목: 간디청소년학교 평화순례 2004
2. 주최: 간디청소년학교
3. 주관: 간디청소년학교, 간디청소년학교 학부모
4. 협조: 각 지역단체(시.군청, 읍.면.동사무소, 5.18 기념사업회, 한마음 공동체 등)
5. 기간: 2004년 5월 9일(일) - 5월 29일(토) (20박 21일)
6. 인원: 종주인원 60-70명(학생 47명, 교사 7명, 학부모 4-7명, 자원봉사 2-9명)
7. 주제: 생태, 인권, 역사의 현장을 체험하면서 평화를 실현한다.
8. 목적:
 - ① 현장학습(움직이는 학교)
각 지역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 지역단체를 비롯한 많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세상을 깊이 이해하는 눈을 키운다.
 - ② 공동체 정신
힘들게 걷는 여정 속에서 서로 배려, 양보하고 도와주며 학생, 학부모, 교사가 공동체 정신을 느끼고 배운다.
 - ③ 평화운동
소외된 곳에 평화의 중요성을 전하고 희망을 나눈다.
 - ④ 생태적 삶
생명의 원천 '자연'을 통해 생태적 삶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 ⑤ 자신감과 성취감 부여
오랜 기간 힘들고 어려운 걸기를 통해 인내를 배우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는다.
9. 우리가 걸어갈 길

부안 - 정읍(동학혁명지 답사)- 백양 - 장성(한마음공동체 생태체험) -
 광주(5.18 성지순례) - 담양 - 순창 - 남원 - 실상사(작은학교와 생명) -
 산청(간디학교) - 영동(노근리 민간인학살터, 차량이동 예정) - 상주 화동 -
 상주 가은 - 문경새재 - 월악산 - 제천간디학교- 평택(평화축제 참가, 차량이동 예정)

1) 프로그램

- ① 부안 거리선전전과 발대식 ② 동학 유적지 답사 ③ 장성 한마음공동체 체험
- ④ 광주항쟁 유적지 체험 ⑤ 실상사 작은학교와의 교류
- ⑥ 성심원 (한센병 환자촌) 봉사 ⑦ 산청간디 깜짝 잔치
- ⑧ 노근리 민간인 학살터 견학 ⑨ 제천간디 해단식(잔치) ⑩ 평택 평화축제

2) 개별 준비물

신발(조깅화, 아주 가벼운 등산화, 공기질 통하는 운동화 중 1개)), 등산용 샌달, 작은배낭(30 L 정도), (될 수 있으면 겨울용)침낭, 등산용 매트리스(침낭갈래), (빙거지)모자, 수건, 우의(오버트라우저: 있는 사람에게 한해), 에어베게, 물통(생수통도 좋음), 지퍼팩 2-3개(젖은 거나 젖지 않게 보관용), 개인수저, 파우더 긴상하의 1벌, 반팔티(2-3개), 반바지(1-2개), 등산용(스포츠)양말(3-4개), 속옷(3-4벌), 잠바, 세면도구, 썬크림, 후레쉬(작은 것), 개인컵(필요한 사람에게 한해), 기타 등

3) 전체일정

- 5월 9일(월) 08시 출발-새만금거처-16시 부안도착-거리선전-18시 부안성당도착
17시 발대식(문규현신부 강의, 부안대책위 동영상 상영과 강의, 교장선생님)
- 5월 10일(화)부터 순례 시작
- 5월 22일(토) 산청도착 ----- 학부모님 깜짝 잔치(많이 오세요)
- 5월 28일(금) 제천 간디도착 ----- 학부모님 끄씩 잔치(많이 오세요)
- 5월 29일(토) 08시 평택축제 출발 - 부스 선전전 - 저녁 메인 무대 공연

< 세부일정 >

- 5월 9일:<발대식과 전야제> 부안성당(1박)
- 5월 10일 : 성당 - 부안군 이평면 두전리(점심) - 황토현 전적지 - 정읍시 덕천면(2박)
- 5월 11일 : 덕천면 - 정읍시 입암면(점심) - 장성군 북이면(3박)
- 5월 12일 : 북이면 - 장성군 안평리(점심) - 장성군 남면 한마음공동체(4박)
- 5월 13일 : 장성 한마음공동체 생태체험(5박)
- 5월 14일 : 한마음공동체 - 광주 하남산단(점심) - 광주 YMCA 사무실(6박)
- 5월 15일 : 전교조 사무실 - 망월동 5.18묘지(점심) - 담양군 봉산면(7박)
- 5월 16일 : 봉산면 - 담양군 금성면(점심) -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8박)
- 5월 17일 : 고추장 마을 - 순창 적성면(점심) - 순창 대산면(9박)
- 5월 18일 : 대산면 - 남원시 광한루(점심) - 남원 운봉면(10박)
- 5월 19일 : 황토마을 - 남원 산내면 장승공원(점심) - 실상사 작은학교(11박)
- 5월 20일 : 실상사 - 향양 마천면(점심) - 산청 금서면 화계리(12박)
- 5월 21일 : 화계리 - 산청읍(점심) - 성심원(13박)
- 5월 22일 : 성심원 - 산청 간디학교(14박)
- 5월 23일 : 영동노근리 - 모서 - 상주 화동면 (15박)
- 5월 24일 : 화동면 - 화령 - 상주 화북면(16박)
- 5월 25일 : 상주 화북면 - 농암 - 상주 가은읍(17박)
- 5월 26일 : 가은읍 - 문경새재 - 조령산 휴양림(18박)
- 5월 27일 : 조령산 휴양림 - 월악산 - 한수면(19박)
- 5월 28일 : 한수면 - 덕산면 - 제천 간디청소년학교(20박)
- 5월 29일 : 학교 - 차량이동 - 평택(평화축제 참가). 끝.

■ 일시 : 2004년 5월 10일 (월) ■ 장소 : 부안성당 - 덕천교당 ■ 거리 : 21.0km			■ 일시 : 2004년 5월 11일 (화) ■ 장소 : 덕천교당 - 남성경로회관 ■ 거리 : 29.0km		
거리	장소	비고	거리	장소	비고
	부안성당 출발			덕천교당	우회전
	새마을 금고	우회전	0.2	덕천사거리	우회전
	소방서	좌회전	1.9	덕천 면사무소	
1.8	하이안사거리		3.0	LG 신정주유소	우회전
	정읍방향		4.0	한전, 한수글로벌	
2.5	봉용주유소	우회전	4.8	효죽 고가도로	
	모산정유소	좌회전	5.6	농산도매사거리	우회전
3.8	사거리 직진		6.4	정읍계량소 사거리	직진
	굴다리 휴식		7.0	SK주유소	우회전
5.1	신월리		7.2	소방서사거리	직진
5.9	사거리		7.9	철길다리	우회전
6.2	SK백산주유소		8.8	운동장	간식
6.7	백산파출소		9.7	칠정마을	
6.9	백산중앙교회		10.2	과교삼거리	우회전
7.1	외거삼거리	좌회전	10.9	과교 고가도로	
8.3	봉동가든		11.4	현대 대광주유소	우측
9.3	하청교회		12.8	구마석마을	
10.2	세천가든		13.7	SK 입암주유소	
11.7	정읍시 이평면		14.0	신마석 마을회관	점심
12.5	솔밭, 두전보건소	점심	14.7	거슬막 식당	
14.6	이평면사무소	우회전	15.3	왕실삼거리	직진
	농협, 보건소	좌회전	16.0	단곡삼거리	직진
16.8	한수삼거리		17.0	LG 천원주유소	직진
17.2	교회		17.2	입암 면사무소	
18.5	가든 황토현		18.8	갯바위가든	휴식
19.4	녹두광장, 유적지	화장실	19.2	갈재 오르막	
20.5	원불교 덕천교당		22.0	갈재 정상	
			24.6	목란정류소	
			26.8	조산교회	휴식
			29.0	백양역사거리	좌회전
				북이면 남성경로회관	

■ 일시 : 2004년 5월 12일 (수) ■ 장소 : 북이면 - 한마음공동체 ■ 거리 : 27.2km			■ 일시 : 2004년 5월 14일 (금) ■ 장소 : 한마음공동체 - 광주 YMCA ■ 거리 : 24.5km		
거리	장소	비고	거리	장소	비고
	북이면			한마음공동체	
0.3	삼거리	직진		평산마을	
2.4	모현리 굴다리		3.4	남면보건지소	
3.9	장성병원		4.4	남면 농협	
4.8	작송마을 굴다리		4.7	남면삼거리	우회전
6.0	박산마을 사거리	직진	6.5	SK 광장주유소	
7.3	강정삼거리	직진	7.8	비아삼거리	우회전
8.0	거목공예		8.2	광산교차로	우회전
8.5	갑동마을	간식	9.4	광주신용보증기관	
10.9	새순수양관		10.4	6번도로 표시판	
12.3	용암마을 정자	휴식	11.6	산단관리소 사거리	직진
13.8	안평마을		12.9	흑석사거리	좌회전
15.0	월광촌회관	점심	13.3	하남교공원	점심
16.1	장재마을		15.0	신가지입구	직진
16.8	세종모텔삼거리	직진	19.4	동운고가교	직진
17.5	장성역		20.7	무등경기장	휴식
18.4	고려시멘트 사거리	직진	22.1	신안사거리	
19.3	LG주유소		22.7	산수오거리	대인교차로쪽
20.1	장성IC사거리	직진	23.2	중흥육거리	직진
21.4	오르막정상		24.0	금남로5가	좌회전
22.3	분향마을	우회전	24.5	광주 YMCA	
23.2	마산마을	직진			
24.7	덕성마을				
25.7	자풍마을	화장실			
26.5	한마음공동체 입구	우회전			
27.2	한마음공동체				

■ 일시 : 2004년 5월 15일 (토) ■ 장소 : 광주 YMCA - 담양군 봉산면 ■ 거리 : 21.5km			■ 일시 : 2004년 5월 16일 (일) ■ 장소 : 봉산면 마을회관 -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 거리 : 20.0km		
거리	장소	비고	거리	장소	비고
	광주YMCA			봉산마을회관	우회전
	금남로 3가	우회전	2.6	담양쪽으로. 담양읍 표지	
	계림오거리		4.7	강생리 사거리	
2.0	산장입구사거리		5.1	죽공예박물관	휴식
3.2	말바우사거리			백동사거리	좌회전
4.2	홈플러스		6.0	담양읍 교차로	좌회전 후 직진
4.5	문흥지구 입구	휴식	6.5	숲길 시작	문화회관 직진
6.7	현대오일뱅크			종대삼거리	직진
9.2	위생매립장삼거리	좌회전	7.6	석당간교차로	우회전
11.2	5.18묘역	점심	9.9	금일교차로	직진
12.6	구묘지		10.6	금성오일뱅크	
15.2	삼거리	우회전	10.9	금성중학교	점심
16.0	삼현농원			사거리	좌회전
17.0	월전마을 삼거리	좌회전	14.6	SK 광일주유소	
18.7	도로공사 삼거리	우회전	16.4	금과동산	
20.3	삼거리	우회전		순창방면	
20.9	봉산삼거리	우회전	20.0	민속마을	
21.5	봉산면 마을회관			여-문정희할머니댁 남-참샘순고추장	

■ 일시 : 2004년 5월 17일 (월) ■ 장소 :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 남원 반송마을 ■ 거리 : 25.0km			■ 일시 : 2004년 5월 18일 (화) ■ 장소 : 남원 반송마을 - 남원 운봉공소 ■ 거리 : 27.0km		
거리	장소	비고	거리	장소	비고
	고추장마을	우회전		반송마을	우회전
1.0	백산마을		1.9	정충마을	
3.0	순창여중		3.1	서원초등학교	
3.5	터미널사거리	직진	4.0	LG 남원농협 주유소	
4.4	남원삼거리	좌회전	5.3	만복사지	
4.6	제일고삼거리	우회전	6.1	시정사거리	우회전
6.9	지산사거리	직진	6.8	요천굴	좌회전
8.8	미락정		7.0	광한루	
10.4	관평마을		8.7	남원대교사거리	
12.5	신월		10.7	이벽삼거리	직진
13.5	괴정삼거리	우회전	11.7	누른대삼거리	우회전
14.9	서림마을	점심	12.0	고죽교차로	직진
16.4	오르막		15.0	요천 오일뱅크	점심
17.5	비흥골가든		15.3	요천삼거리	우회전
21.0	감동삼거리	남원방향	15.6	남평삼거리	직진
23.2	독산마을		16.1	정원황토타운	
25.0	반송마을 마을회관	천막1-2동 필요(잠자리)	17.7	강기삼거리	직진
			18.3	오르막 시작	
			21.7	간이휴게소	
			22.4	간이휴게소	
			22.9	정상	
			24.0	연동마을	
			25.0	경마축산고 실습장	
			25.7	SK 운봉주유소	
			26.0	운봉삼거리	직진
			26.5	우체국	좌회전
			27.0	운봉공소	화장실(젓간)

■ 일시 : 2004년 5월 19일 (수) ■ 장소 : 운봉공소 - 실상사작은학교 ■ 거리 : 15.6km			■ 일시 : 2004년 5월 20일 (목) ■ 장소 : 실상사작은학교 - 산청 화계리 ■ 거리 : 22.7km		
거리	장소	비고	거리	장소	비고
	운봉공소			실상사작은학교	
	운봉초등학교	직진	2.2	마천고을(물레방아)	
0.8	북천삼거리	우회전	3.6	마천면사무소	
2.4	소석마을 입구		5.8	칠선계곡 입구	
3.2	황산대첩비		6.6	SK 추성주유소	
4.7	서광가든		8.5	등산로 안내판	
6.4	달오름마을 입구		10.5	소공원	화장실
6.9	인월삼거리	우회전	11.9	백연마을	
7.7	구인월교	우회전	12.9	문정마을	점심
	산내방향	좌회전	14.7	화림정가든	
8.8	경애원		15.7	임천골가든	
9.7	흥부골자연휴양림 입구	좌회전 후 우회전	16.7	휴천 오일뱅크	
10.2	지리산 금선휴게소	화장실	18.4	모실마을	
11.8	장승공원	화장실	18.7	소공원	
13.1	지리산 오일뱅크		20.5	서주교 삼거리	우회전
13.8	대정사거리	좌회전	21.0	유림삼거리	우회전
14.0	산내중학교	점심	21.7	금서보건지소	
15.6	실상사작은학교		22.2	덕양전	우회전
			22.7	죽소, 화계리	가정집 2동

■ 일시 : 2004년 5월 21일 (금) ■ 장소 : 산청 화계리-성심원 ■ 거리 : km			■ 일시 : 2004년 5월 23일 (일) ■ 장소 :영동군 노근리-상주 화동면사무소 ■ 거리 : 12.0km		
거리	장소	비고	거리	장소	비고
	화계리			산청출발	09:00
2.2	구아마을	오르막 시작		노근리 도착	11:00
2.7	왕산가든			노근리 견학과 강의	11:00-12:30
4.4	오르막 정상			점심(노근리)	12:30-13:30
4.8	한방약초단지			차량이동	
5.6	간이화장실		0	신천삼거리	
7.3	두리마을		1.6	SK 고향주유소, 모동초등학교	
9.9	고가도로		2.6	중모 중학교	
10.3	매촌삼거리	직진	4.8	모서 파출소	
12.2	산청 공설운동장		5.3	삼포사거리(모서초교,중,면사무소방향)	
12.9	경호교	직진	7.2	가막 1리(낙시터)	
13.0	농협 삼거리	좌회전	9.9	신촌정류소	오르막 정상
14.8	4차선 진입로		11.3	화동교차로	화장실, 물
	구도로 진입 건기		11.9	화동초교, 면사무소쪽,	
16.1	농협기술센터 다리 밑		12	화동성당/신촌1리 회관	숙박예정지
17.9	만남의 광장 주유소				
19.8	성심원				

조별이동 경로

■ 일시 : 2004년 5월 24일 (월) - 5월 26일 (수)--2박 3일

■ 장소 : 상주 화동면 화동성당 - 조령산 휴양림

■ 거리 : 78.8 km

거리	장소	비고
0	면사무소	
2.0	이소 정류소	
3.9	울림 정류소, 화서4k 표지판	
5.5	봉촌리(좌측 정류소)	
6.6	동국요업 벽돌공장	
7.6	화령초,중고교, 화령성당(우측)	우회전
8.7	화령장 전적비(좌측)	
9.0	화령 평화 휴게소(좌측)	
10.0	삼거리	문장대쪽으로
11.3	상곡 1리 마을회관(좌측)	
12.6	시거리 식당	좌회전
12.9	송계 초등교 분교	
15.1	돌고래 송어장(좌측)	
15.8	하송1리 마을회관, 큰나무 2 그루	중식예정지
17.4	동관 마을	
17.9	대동 쉼터, 주유소	오르막
18.3	문장대 관광농원	
22.0	갈령, 화북면 시작	언덕정상
24.6	상오 정류소(좌측)	
26.2	상주 학생 야영장	숙박예정지
27.1	수침 정류소(좌측)	
28.1	화북중교	숙박예정지
28.5	화북파출소, 32번 지방도	
29.1	설만한 정자, 화장실	
29.9	병천, 간이 화장실	
30.7	문경시 농암면 시작	화장실, 절경, 휴식지
32	쌍룡터널 입구(약 500m)	
34.4	쌍룡터널 쉼터	
34.9	정자	
36.5	내서1리 마을회관, 전통한지	
37.6	청화분교	
38.4	울수 1리	
40.4	솔밭, 화장실, 대덕주유소	중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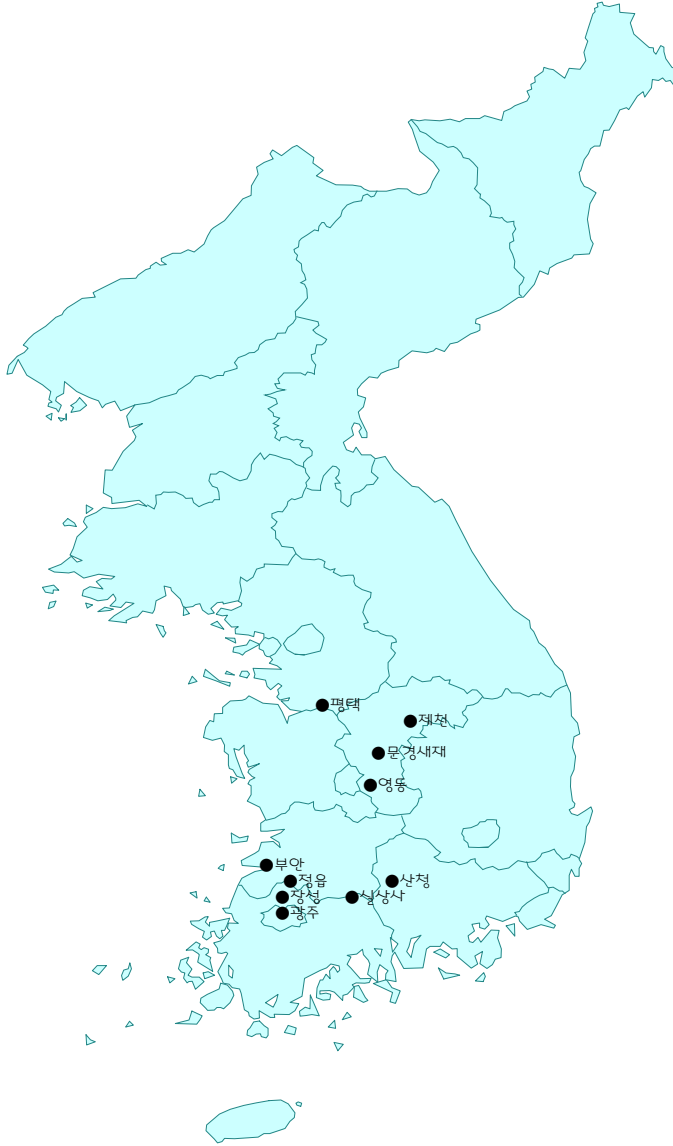
거리	장소	비고
41	농암 초등학교	
42.2	가은읍 표지(좌측)	
44	전곡 3리 마을회관	
45.5	성유 정류소(좌측)	
45.9	성유 마을 회관	
47.6	의자, 쉼터	화장실은 없음
49.5	왕릉 주유소	
49.8	가은읍 사무소, 가은초교	숙박예정지
50.8	오르막 시작	
51.5	마성면 입구	언덕정상
51.8	고려 s오일 주유소	
53.5	양어장 (구랑리 양어장)	
54.3	구랑리 숲 입구	
55.3	석교 마을	
56.4	정리 정류소(좌측)	
56.8	마성 초등학교	
58	마성면 사무소, 보건소	
58.6	마성 파출소, 3번 국도	충주방면으로
62.1	LG 온천 주유소	구도로 이용
64.5	문경새재 쪽으로	
65.1	진안 삼거리	
65.5	도자기 전시장, 문경새재도립공원안	
66.9	삼거리	구도로 쪽으로
67.8	주흘관	
78.8	조령산 자연휴양림	문경새재, 조령관문 통해서

☺ 힘들 때면 조가도 부르고, 서로 손도 잡아주고, 위험한 일에서 구출도 해주며,
안전하고 재미있는 조별이동을 해요.(물놀이 해도 좋아요.) ☺

■ 일시 : 2004년 5월 27일 (목) ■ 장소 : 조령산 자연 휴양림 - 한수면 ■ 거리 : 23.9 km			■ 일시 : 2004년 5월 28일 (금) ■ 장소 : 한수면 - 제천간디청소년학교 ■ 거리 : 21.0km		
거리	장소	비고	거리	장소	비고
0	자연 휴양림		0	한수면	
2.2	소조령 삼거리	우회전	2.4	통나무집	
3.8	새재휴게쉼터		3.7	탄지 삼거리	우회전
5.0	은행정 교차로	우회전	5.0	월악유스호스텔	
6.0	느티나무 휴게소(삼거리)	우회전	6.8	월악주유소(우측)	
6.8	안보 삼거리	우회전	7.9	수산 1리	
8.0	향토가든		9.3	수산 2리	
10.4	SK 주유소(좌측)		10.7	신현2리 정유소	
11.0	송백가든		11.3	SH-OIL 주유소(좌측)	
12.7	일조가든		13.7	신현리 입구	
14.0	매표소 입구		14.6	LG 정유(우측)	
16.3	미륵사지 입구	중식 예정지	16.1	성암 삼거리	우회전
17.8	자연학습 탐방로		16.6	덕산면사무소	중식 예정지
18.4	닷둔재 주차장		17.0	덕산 정유소	
21.1	와룡교(다리)		21.0	간디학교	
22.1	덕주사 입구				
23.2	매표소				
23.9	한수면(송계교회)	숙박			

우리가 걸어갈 길, 어디까지 왔나?

우리가 걸어온 곳곳을 하나로 이어 보세요.



우리의 발걸음이 철조망을 넘고, 총탄을 넘어
한반도 끝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즐거운 평화순례를 위해 기억하세요!!

1. 생활에서 지켜야 할 일들

- 만나는 사람 누구나 반갑게 인사해요.
- 조나 행렬을 벗어나 개인행동은 절대 하지 않아요.
- 숙박지를 떠날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깨끗하게 정돈해요.
- 출발 시간이나 모임 시간을 꼭 지켜야 해요.
- 쓰레기는 꼭 정해진 장소에 버리며, 스스로 줍는 것도 좋겠지요.
- 도로에서 장난을 치거나 방심하면 위험해요. 안전제일!!

2. 힘들지 않게 걷는 방법

- 행렬에서 벗어나거나 쳐지면 더 힘들어져요. 항상 함께 움직여요.
- 앞서사람과의 간격은 1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걸음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늦어지는 경우 뛰지 말고 걸음을 조금 빨리해서 제자리를 찾아요.
- 피로를 잊게 해주는 대화도 좋지만, 심하면 주위도 산만해 지고 오히려 체력이 더 소모되지요. 걷는 중에는 되도록 침묵하고 나 자신과 대화를..
- 휴식 시간에는 신발끈을 다시 매거나 잠시 신발을 벗고 발과 다리를 주물러 주세요. 조원들과 서로의 아픈 발을 주물러 주는 것도 우정이 두터워지는 좋은 방법.

1) 평지걷기

- 편안한 자세로 어깨에 힘을 빼고, 무릎은 조금만 올리고 신발을 끌지 않도록 해요.
- 보폭은 일정한 간격으로 하되, 발바닥에 몸의 중심을 실어 옮기며 가볍게 걸어요.

2) 오르막길 걷기

- 보폭은 좁게 하고, 너무 빨리 걸으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 목적지나 정상을 확인하기 위해 자주 위를 쳐다보면 오히려 더 피로가 쌓이지요.
- 경사가 심한 곳은 똑바로 올라가는 것 보다 지그재그로 올라가며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요.

3) 내리막길 걷기

- 올라갈 때 보다 내려갈 때 근육에 무리가 가기 쉽고, 발끝을 다치기 쉬워요.
- 신발끈을 꼭 매고 발의 앞부분에 몸의 무게중심을 옮겨가며,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요.

4) 내리막길 걷기

- 앞서사람과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걸으며 풀잎 뒤에 붙어있는 독충, 송충이 등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요.
- 나뭇가지가 많으므로 굽히지 않도록 긴 바지와 옷웃을 입는다.

5) 빗길 걷기

- 비가 오면 걷는 속도가 빨라지지만 빗속을 걷는 것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디기 쉽지요. 그러므로 빗속을 걸을 때에는 더욱 안정된 속도로 걸어야 해요.

3. 준비물은 어떻게? 옷차림은 어떻게?

- 1) 절대로 가져오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 금속시계, 반지, 팔찌, 귀걸이, 목걸이 등의 장신구는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착용하지 마세요.
 - 고액의 현금은 필요하지 않아요.
 - 휴대폰, CDP, MP3 플레이어 등은 파손, 분실, 부주의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휴대하지 않도록 해요.
 - 가벼운 무게라도 지치면 큰 짐이 됩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들만!
- 2) 모자는 강한 직사광선에 머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착용하는 것이 좋아요.
- 3) 속옷은 흡수성이 좋고, 잘 마르며 통풍이 잘 되는 것이 좋아요. 참, 잊지 마세요. 걷기가 끝나면 즉시 속옷을 갈아입도록!
- 4) 양말은 발을 보호할 수 있는 두꺼운 면양말을 신으세요.
- 5) 겹옷
 - 땀을 흡수할 수 있는 면티나, 등산용 티셔츠를 입으세요.
 - 바지와 티셔츠 모두 통풍이 잘 되는 것으로 입으세요.
(달라붙는 청바지나 너무 짧은 바지는 곤란하지요.)
- 6) 단화, 군화, 스니커즈 등은 발이 너무 아파요. 폭신하고 가벼운 운동화나 경등산화 조깅화 등이 좋아요.
- 7) 배낭은 너무 무겁지 않게 하며 등이 닿는 부분에는 옷, 수건 등 부드러운 것을...

4. 힘찬 순례를 위한 건강 지키기

- 1) 일일 건강체크 사항(하루 일과 후 조원들 서로 꼭 챙겨주세요.)
 - 두통은 있는가? 목이 아프지는 않나? 입맛이 없지는 않나? 설사나 변비가?
두드러기나 습진은? 발바닥에 심한 물집이? 안색이 좋은가? 눈이 충혈? 열이 있나?
- 2) 피로가 누적되면 걷기에 큰 지장이 있으므로 반드시 취침시간을 지키도록 하세요.
- 3) 걷기에 중요한 내 발, 어떻게 아껴줄까?
 - 자기 전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잘 닦고 발바닥, 발목, 무릎 부분을 마사지해요.
 - 물집이 생겼을 경우, 소독한 바늘로 터트려 진물을 뺀 다음 연고를 바르세요.
 - 쉴 때 마다 발의 땀을 닦아주고 발가락과 발목을 주물러 주세요.
 -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찬물에 발을 담그면 피로회복에 좋지요.

5. 위급한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할까?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선생님께 알려야 해요.

- 1) 찰과상 : 피부 표면에 얇은 상처가 생긴 것으로 무엇에 쓸리거나 긁혀서 발생해요.
 - 오염되지 않은 가벼운 상처는 소독약으로 소독을 해요.
 - 흙과 모래로 상처가 더럽혀졌을 때에는 우선 소독약이나 깨끗한 물로 상처를 씻은 후 붕대를 감거나 구급 반창고를 붙인다.
- 2) 화상 : 1도 화상은 피부가 열이나 뜨거운 물에 닿아 빨개지고, 2도 화상은 물집이

생기며, 3도 화상은 피부조직이 손상됩니다.

- 햇빛에 의한 화상의 경우, 피부가 붉어지고 열이 나며 물집이 생기지요.
 - 가벼운 화상일 경우에는 즉시 충격이나 감염을 방지하고 화상부위를 찬물이나 얼음으로 찜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일사병 : 태양광선을 오래 받을 경우 발생하며 두통, 현기증, 구토, 권태증, 고열 피부건조 등의 증세가 있으며 맥박이 빠르고 약해 혼수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 신속하게 나무그늘 등 선선한 곳으로 옮겨 머리를 높게 하고 눕힙니다.
 - 몸을 차가운 수건으로 식히고 입술을 적시며 물을 먹여요.
 - 의식이 없을 때에는 기도를 확보하세요.
 - 경련을 일으키면 손수건을 접어 입에 물게 해야 안전해요.
 - 환자가 원하면 냉수와 식염수를 주세요.

4) 열 소모증

- 일사병과 비슷하지만 얼굴이 창백하고 오한이 심해지는 증세가 일어나요.
- 응급처치는 머리를 낮게 하고 몸을 차게 해서 열을 내리게 하고 염분을 섭취하게 하는 것이 좋지요.

5) 심한 구토나 복통과 몸에 알려지가 생길 경우는 식중독이기 쉬우므로 후송하기 전에 환자의 위 속으로 들어간 독물을 토해내게 하는 것이 우선이지요. 잘 구토가 되지 않을 경우 더운 소금물을 먹여 토하게 해야 합니다.

잠깐! 알아두면 좋은 걷기 상식 < 오래 걸을 때는 어떤 신발을 골라야 할까? >

1. 신발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신어보고 발이 편한지를 확인해요.
2. 신발의 바닥이 너무 끈끈하거나 매끈하지 않은지를 확인해요.
- 걸을 때 땅바닥을 적절히 당겨 줄 수 있는 신발을 골라야 넘어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3. 유연성이 좋은 신발을 골라야 해요. 휘어질 부분은 쉽게 휘어지고 단단해야 하는 부분은 고정되어 있어야 해요. 신발의 앞부분과 뒤축을 잡고 휘어 보세요. 앞부분은 유연하게 잘 휘어지지만 중간 부분은 휘어지지 않는 것이 이상적인 신발~
4. 신발이 숨을 쉬는지도 확인해야하는데 발을 덮는 윗부분이 습기를 통과시켜야 발에 땀이 차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죽이나 통기성 재질의 천 제품이 좋지요.
5. 매우 중요한 것이 쿠션인데 특히 발꿈치 부분에 넉넉한 쿠션이 들어 있어 걸을 때 발꿈치로 전달 되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지요.
6. 달리기용 신발은 달릴 때 발꿈치가 아닌 발의 중간 부분에 충격이 최대화된다는 점 때문에 신발의 중간 부분의 쿠션을 보강하는데 이런 이유에서 걷기용으로는 별로..
7. 신발의 앞부분은 발가락이 모두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넉넉해야 하지만 발꿈치 부분은 잘 맞아 신발이 벗겨지지 말아야 해요. 가장 긴 발가락과 신발 끝부분에 엄지 손가락 한 개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으면 오케이~
8. 신발끈을 매는 형태의 신발이 발을 더 단단히 유지해주고 조절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손가락 관절염 때문에 끈매기가 어렵다면 벨크로(찍찍이)가 달린 신발을 구입하는 것도 괜찮아요.
9. 적절한 양말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면이나 모직 양말은 땀을 흡수하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양말에 이음새같은 건 되도록 없는 것이 좋고요, 물집이 잘 생기는 경우 두 겹레를 겹쳐 신어요. 자꾸 발가락에 구멍이 나는 경우는 신발이 발 길이에 비해 너무 짧거나 걸을 때 발가락이 앞으로 이동하는 등 신발이 안 맞기 때문이지요.

부안, 핵을 넘어 생명의 보금자리로

끝내 부안 땅에서

죽음마저 감미로워
나까지 속이는 돈타령을
썰물에 실어 떠배로 떠나보내자

타다 남은 고무신짝처럼...

선거철이면 밤안개랑 찾아와
파란 양심을 묶어버리는 올가미
이제는 그렇게 가버려라

끝내 부안 땅에서

나만을 앞세우려
동지마저 미워하는 불덩이를
썰물에 실어 떠 배로 떠나보내자

알곡 빠진 밀대 수수강으로...

난리 통에 세를 조직하여
내일의 열매를 그리려는 야심, 명예욕
이제는 그렇게 가버려라.

춧불 그대 뜨거운 눈물로
하나가 되어버린 부안 전복 온 누리 땅 하늘과 사람 사람이
우리 스스로 주인 됨을 밀물이랑 모시어 보자

고래보다 거대한 멸치 떼 함성으로...

-이강산 반핵서사시 <부안독립선언>, 썰물은 가고 중에서-

1. 부안 핵폐기장 사태의 개요

1978년 우리나라에 첫 원자력 발전이 시작된 이후로 전체 에너지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40%에 이르고 있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원자력 에너지의 비율을 줄이거나 아예 원자력 정책을 포기하는 한편 태양열이나 풍력과 같은 생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앞으로도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설이 예상되며 원자력 에너지 의존율도 그에 따라 더 높아질 전망이다.



아름다운 위도해변에 방폐장이 들어선다면-위도에는 각종 천연기념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자력 에너지 의존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에 따른 방사성 폐기물의 지속적인 증가를 뜻한다. 지금까지는 원자력 발전소 자체에서 마련한 시설을 통해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해 왔으나 이제 그 수용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으며 그래서 하루빨리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하 방폐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측의 입장이었다. (실제로 방사성 폐기물이 포화 상태에 도달했는지는 의문스럽다는 것이 비정부 기구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정부는 1990년 안면도와 1995년 굴업도에 각각 방폐장 설치를 유도하였으나 해당 주민들의 거센 반발

에 부딪혔고 2003년엔 영덕, 울진, 영광, 고창의 네 곳을 후보지로 선정하였으나 역시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방폐장 추진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에 당황한 정부는 방폐장이 설립되는 곳에는 큰 부가가치 사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양성자 가속기’ 설립을 약속하였고 새만금 사업 등으로 황금어장이 죽어가는 등 재정이 악화 상태에 있던 부안에서 김종규 군수가 주민과의 약속을 번복하고 2003년 7월 11일 부안군 위도면에 방폐장 단독 유치 신청을 한 것이 지금의 부안 사태를 부른 직접적이 계기가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방폐장이 들어설 후보지인 위도면 주민들에게 3억 내지 5억원의 현금 보상을 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나돌았고 위도 주민들은 처음에는 물질적인 보상금에 현혹되는 등 이익에 따른 갖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안 주민들은 방폐장 유치 신청 후 지속적인 촛불 시위와 방폐장 반대 운동을 통해 전국적인 방폐장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정부는 경찰을 동원하여 평화적인 반대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한편, 수천억원의 지역발전 기금 지원, 카지노장 유치 등 갖가지 회유책을 동원하였으나 부안 주민들의 의지는 꺾을 수가 없었다. 급기야 2003년 안에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제안도 여론이 불리하게 조성되자 돌연 취소해 버렸고 지난 1월 9일에는

어처구니없게도 **서울대 교수들이 '학자의 양심'**을 걸고 관악산에 방폐장을 유치 하자는 홍보성 선언까지 발표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반면에 부안 방폐장 건설 대책위는 지난 2월 14일 방폐장 유치 반대 투표를 실시하여 주민 73.73%의 참여 와 그 중 91.8% 반대라는 압도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다.

현재 김종규 부안군수의 방폐장 유치 신청은 아직도 유효한 상태로 남아있고 정부는 주민투표를 무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부안 사태를 통해 본 문제점

(1) 민주적 절차와 투명 행정 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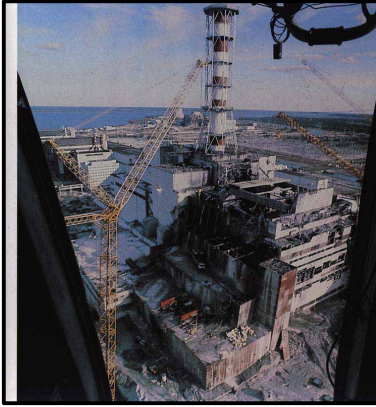
- 김종규 부안 군수는 지역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주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인 방폐장 유치 신청을 했다.
- 방폐장이 들어서는 곳은 폐기물이 스며들거나 지각 변동에 의해 새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질학적인 조건이 가장 중요한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위도는 안전한 지질구조가 아니다. 정부의 관계 기관은 지질 조사 결과를 허위로 꾸미거나 상황에 유리하게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2) 환경과 에너지 대안에 대한 인식 부족

- 국제적인 원자력 에너지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현재의 40%에서 원자력 에너지 의존율을 더욱 높여갈 방침이다.
- 화석 연료 뿐만 아니라 원자력 역시 지구 환경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 올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당장의 효과에 급급하기 보다는 친 환경적인 에너지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 전문가들에 의하면 방사성 폐기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누적될 방사성 폐기물을 생각한다면 원자력 에너지 의존율을 낮추어야 한다.

3. 원자력 에너지와 방사성 폐기물

원자력 에너지의 기원은 원자 폭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차 대전이라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과학자들은 원자력 에너지가 가진 통제 불가능의 위험성을 경계하기 보다는 그 가공할 위력으로 전쟁을 끝낼 생각에 더 급급했다. 그러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 폭탄의 위력은 과학자들의 윤리관에 큰 충격을 주었고 원자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데 눈을 돌려 탄생한 것이 원자력 발전이다.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와 달리 공해가 적고 무궁무진할 것이라는 등 애초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원자력 발전은 통제의 어려움에서 오는 잦은 사고와 무엇보다도 그 동력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



사상 최대의 원전 사고를 낸
체르노빌 원전

선, 기타 각종 유해한 방사성 물질의 배출로 인해 원자력 무기와 마찬가지로 인류가 만들어낸 최대의 위험 시설이 되어버렸다.

원자력 발전소는 방사능 누출을 막기 위해 수검의 방호 시설과 복잡한 설비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이 가진 자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그동안 크고 작은 방사능 누출 사고가 계속되어 왔다. 원자력 발전의 사고 가능성은 몇 백만분의 일에 불과해서 사람이 벼락에 맞을 확률 보다 더 적다는 것이 관계 기관의 변명이었다. 또한 원자력 발전은 복잡한 시설과 거대 자본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홍보해왔던

관계 기관은 사고가 일어나도 은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월드컵 열기가 한창이었던 지난 2002년 국내에서도 울진 원자로의 방사성 냉각수가 누출되어 **비상 냉각장치가 가동**되었으나 정부는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원전에서의 비상 냉각장치 가동은 원자로가 과열되어 폭발할 수도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형 사고다. 체르노빌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도 원자로의 과열로 일어난 참사였다.) 설사 관계 기관의 말대로 사고 가능성이 극히 적더라도 원자력 관련 사고는 다른 사고와 달리 일단 사고가 일어나면 엄청난 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986년의 체르노빌 사건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수백배의 방사능 누출을 불러 왔으며 14,000명에서 475,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방사능 노출에 의한 암으로 사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방사능 노출에 의한 각종 유전적 질병과 기형아 출산 또한 엄청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자력 발전이 가진 자체적인 위험 요소에 설상가상으로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 또한 엄청난 양의 방사능을 내뿜고 있어 그 안전과 처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태이다. 원자력 발전의 연료인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사용 후에도 엄청난 양의 방사능을 방출하는데 이 방사능이 다 없어지기 위해서는 수만년, 또는 수십만년, 길게는 수백만년이 지나야 한다. 발전소에서 사용했던 도구나 연구원들의 작업복에 이르기까지 발전소에서 사용되었던 모든 것들이 철저한 관리 속에 폐기 처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렇게 위험한 폐기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격리된 장소에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철저히 막을 수 있는 엄격한 시설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지역에 방폐장이 들어설 경우 이를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부안 사태는 이러한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 핵폐기장 건설을 결사 반대하는 부안의 주민들

4. 지구를 살리는 생태적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하여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자력 에너지는 원자력 자체의 문제와 폐기물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인류에게 안전한 연료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당장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 가까운 우리들의 미래와 후손들의 미래를 오염시킬 수는 없는 없다. 원자력 이전부터 인류의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온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화석 연료들도 이제는 그 매장량이 거의 소모되어 가고 있으며 엄청난 지구 오염물질을 내뿜는 주 오염원이기도 하다. 원자력 에너지의 연료인 우라늄 또한 그 매장량에 한계가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세계 최대의 석유 소비국인 미국이 이 에너지를 위해 벌이고 있는 이라크에서의 전쟁은 바로 에너지를 독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앞으로도 인류가 한정된 자원에서 에너지를 얻어야 하는 한 이들 자원을 위한 전쟁은 불가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류는 앞으로 어디에서 에너지를 얻어야 하는가? 그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리의 주변에 밤낮으로 찾아오는 태양과 바람이 그것이다. 현재 태양 열과 풍력 등 생태 에너지(또는 재생 가능 에너지라 해도 좋다)를 이용한 발전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세계의 주 에너지원과 달리 태양이나 바람은 오염물질을 남기지 않는다. 세계 화석연료의 대부분을 소모하는 미국에서조차 생태 에너지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생태에너지의 생산비용을 이유로 원자력 에너지의 사용을 점차 늘려나가기려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태양력과 풍력 발전에 필요한 시설은 아직 그 이용

도가 확대되지 않아 생산비가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나, 정부에서 에너지위기와 생태적 대안에 관심을 갖고 이들 시설에 지원을 하고 공급을 늘린다면 생산비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더욱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바다라는 공간을 이용한 대규모 풍력 발전이 가능하며 태양력 또한 밝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당장 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안임을 생각할 때이다.



핵없는 세상을 꿈꾸며- 부안의 어린이들

내 발로 걸어온 역사의 현장



부안에서 내가 느낀 것은



나의 의문점, 돌아가서 더 알아보고 싶은 것들

동학혁명, 그 날의 합성이 여기까지

▶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1. 동학농민운동이란?

1894년(고종 31) 전라도 고부의 동학접주 전봉준 등을 지도자로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하여 일으킨 농민운동으로, 전라도 고부군에서 일어난 민란에서 비롯되었는데, 1876년 개항 이후 일본은 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투를 감행하여 조선을 일본의 시장화하는 한편, 조선에서 쌀을 반출해 감으로써 물가를 자극하여 농민들의 생활을 이중으로 억압하였고, 일본인 어부들의 횡포는 조선 어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등등 일본의 조선개입으로 점점 농, 어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져만 갔다. 이러한 절박한 사정 속에서 탐관오리의 횡포는 갈수록 가중되어 백성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농민을 중심으로 군민은 더 이상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여 동학의 고부접주로 있는 녹두장군 전봉준을 선두로 마침내 울분을 터뜨렸다. 1894년 1월 10일 새벽, 1,000여 명의 동학교도와 농민들은 흰 수건을 머리에 동여매고 몽둥이와 죽창을 들고, “타국 상인의 미곡 매점과 밀수출을 막아라, 외국상인이 내륙 각지로 횡행하는 것을 막아라, 각 포구의 어염선세를 혁파하라, 수세 기타 세금을 없애라, 탐관오리를 제거하라, 각 읍의 수령·이서들의 포악한 정치와 거짓을 근절시키라”는 등의 개혁조목을 내걸고 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무기를 탈취하고 불법으로 징수한 세곡을 모두 빈민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러던 후 전봉준은 피신하여 정세를 관망하다가 이 기회에 고질의 뿌리를 뽑아야 하겠다고 판단하여 근의 동학 접주들에게 통문을 돌려, 마침내 1894년 3월 여러 지방의 접주들이 각기 병력을 이끌고 전봉준이 먼저 점령한 백산으로 모여들었는데, 그 수가 1만 명에 가까웠다.

이렇게 3월말부터 4월말까지 성을 함락시키고 탐관오리를 처형하는 등 잘되어가는 듯 했으나 때마침 앞서 요청했던 청나라의 원군이 아산만에 도착하였고 일본은 일본대로 거류민보호를 핑계로 6월 7일에 출병할 것을 확인했다. 그로써 제1차농민운동은 막을 내렸다.

2. 제2차농민운동

전라도 각읍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개혁정치의 실현을 꾀하던 전봉준은 대원군이 섭정하고, 청·일 양국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자, 폐정개혁을 논할 때가 아니라 항일투쟁을 벌일 때가 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다 10월 21일 전봉준의 10만 호남군과 손병희의 10만 호서군은 관군과 일본 연합군을 공격, 혈전을 거듭하였으나 상대방의 막강한 근대적 무기와 화력으로 인해 패배를 당하여 퇴각하였고 전봉준은 다시 한번 재기를 꾀하던 중, 11월 배반자의 밀고로 체포되어 1895년 3월 서울에서 처형되었다.



< 압송되는 전봉준 장군 > 전봉준 장군의 유일한 사진에 대하여 '압송되는 모습'으로 알려져 왔다. 압송되는 모습이라면 1894년 12월 2일 순창 피노리에서 서울로 오는 과정의 모습일 것이나 <동경조일신문> 1895년 3월 12일자 기사에 이미 범무아문의 심판에 회부된다면 사형을 면치 못할 것임으로 그 용모만이라도 촬영하여 두고 싶다는 사진사의 청에 의해서 촬영이 허가되었다는 내용이 있고, <대판매일신문>에 사진의 구도나 인물묘사가 거의 같은 삽화가 실려있다. 같은 장면을 사진사와 화사가 특별히 사진을 찍고 스케치하기 위하여 연출한 장면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동학혁명 100주년기념 특별전시회 - 이종학 소장 문헌자료전 참조)

이로써 아래에 없었던 광범한 민중의 무장봉기로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은 1년 동안에 걸쳐 30~40만의 희생자를 낸 채 끝났고, 이들의 개혁의지는 이후의 정치에 큰 영향을 끼쳐 위정자의 반성과 각성을 촉구하여 갑오개혁의 정치적 혁신을 가져왔다. 때는 1860년 시대의 혼란기..조선은 열강의 밥그릇 싸움터로 난장이 되고 언제나 그랬듯이 위 것들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백성들을 짓밟아왔다.

피눈물 마를 날 없었던 우리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동학 농민 운동에 참여했다. 태인을 시작으로 고창->영광->함평->나주->순창->장성->정읍으로 탐관오리의 목을 베고 억울한 자를 살피는 그 이름하여 "동학농민운동"..놀란 조정에서는 청나라에 지원요청을 했으나 텐진조약으로 인해 일본 역시 3일후에 상륙하여 어이없게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의 승리로 끝났는데, 나라는 개판이 되어 백성은 "어 허~ 쪽바리들이 날뛰는구나~"라며 개탄 하며 우리의 동학농민군은 논산과 보은에서 각각 공주로 총공격을 감행하나 안타깝게 죽창과 맨주먹으로는 사실상 훈련된 조총 부대에 상대가 될 수 없었다. 3000명이 한 자리에서 몰살당했는데 그 핏물이 금강으로 흘러들어 금강에서는 지금도 11월만 되면 그때의 아우성이 강줄기를 타고 흐른다고 한다.

그렇다. 이 전투가 유명한 "공주 우금치 전투". 한국사를 이끌어 온 우리의 정신이다.

1년여 동안에 걸쳐 30~40만의 희생자를 낸 채 끝난 동학농민운동은 위정자의 반성과 각성을 촉구하며 부정한 권력에 대해 저항한 민중의 위대한 힘으로 우리들 가슴에 아직도 그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다

내 발로 걸어온 역사의 현장



황토현에서 내가 느낀 것은



나의 의문점, 돌아가서 더 알아보고 싶은 것들

뜨거운 오월의 노래, 아아 광주

지도를 펴보자
광주는 어디에서 계속되고 있는가
광주를 헤쳐보자
오월은 어디에서 계속되고 있는가
광주는 이제 한반도 동서남북 어디에나 있다
파쇼의 패악성과 제국주의 독소를
집중투하한 노동자, 농민의 삶과
영웅적인 투쟁의 대열이 있는 곳
오월은 그곳에 살아 있다
노동자 동지들
오월을 더 이상
광주에 못박지 말아다오
우리의 자랑스런 투사들을
더이상 망월동에 묻어두지 말아다오
더이상 상처로만 치유하려거나
지난 역사에 맡기지 말아다오
오월은 노동자, 농민의
영웅적 투쟁의 대열에
살아있다
계속되고 있다

-백무산, 「오월은 어디에 있는가」 중에서

1. 5.18 민중항쟁의 발생배경

1961년 5·16 군사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독재정권은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경제성장에 집착하였고 솟구치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극심한 탄압으로 일관하였다. 저곡가 저임금 정책은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으며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는 민주화운동 세력을 압살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우선 수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은 전국적으로 그칠 줄 모르고 전개되었다.

마침내 한계에 도달한 박정희 독재정권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자신의 심복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에 의해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 때부터 군부내에서 자신의 세력을 규합해 온 전두환을 주축으로 한 신군부 일당은 오히려 민주화 과정의 과도기를 틈타 자신들의 집권 시나리오를 준비하여 착착 진행하고 있었다.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한 다음, 당시 분출되고 있던 전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세력과 야당의 정적을 제거해야 했다. 그 제물이 광주였다. 민주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온 곳이며 야당의 정적 중에서 가장 많은 대중적 지지를 받고있던 김대중의 정치적 고향이 전라도 광주였던 것이다.

전라도 광주는 70년대 박정희 개발 독재 때부터 희생양이었다. 철저히 소외되었고 경제에서는 낙후되었으며 우리 민족을 다시 동서로 가르는 지역감정의 불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장은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 내던지며 투쟁해 온 민주투사의 고장이었다. 전두환 군부 일당의 학살만행에 맞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시민전체가 일심동체로 저항하였던 것은 정신적 측면에서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든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결국 피의 진압으로 5·18민중항쟁은 끝났지만 그 후 청년학생을 비롯한 양심적인 민주인사들과 민중운동에 의해 전두환 일당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움으로서 항쟁의 정당성은 온 천하에 입증되기에 이르렀다.



-광주시내를 점령한 군인들과 끌려가는 시민

2. 5.18 민중항쟁의 의의

5·18 민중항쟁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자발적인 민중운동의 소산이다. 조선말기의 갑오농민혁명, 일제 강점기의 3·1운동과 광주학생독립운동 등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은 민족해방투쟁,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학생혁명 등의 정신을 이어받은 밑으로부터 개혁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항쟁이었던 것이다.

5·18민중항쟁은 깨어있는 민중이 민주사회 발전의 원동력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의 자주적인 통일, 그리고 평등 세상을 향한 사회진보 운동의 일대 전환점으로 자리잡았다.

5·18민중항쟁은 당시에는 피의 진압으로 패배하였지만 이후 전개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유신체제를 계승한 제5공화국 정권의 부도덕성을 만천하에 드러낸 증거가 되었고, 나아가서는 불법적인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한 정치군부 세력을 심판하였으며 마침내는 부당한 권력의 횡포에 맞선 민중의 자위적 무장항쟁이 국민저항권의 적극적 행사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5·18민중항쟁 시기의 수준높은 나눔과 자치, 연대의 공동체 정신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훌륭한 모범이자 압제에 저항하는 세계 진보적인 사람들의 가슴에 가장 경이로운 민중항쟁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이제 5·18민중항쟁은 저항과 단죄를 넘어 나눔과 자치, 연대의 공동체 실현을 위해 우리 모두가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인류역사의 송고한 가치로 승화시켜나가야 할 우리 모두의 유산이다.

3. 5.18 민중항쟁의 조작과 왜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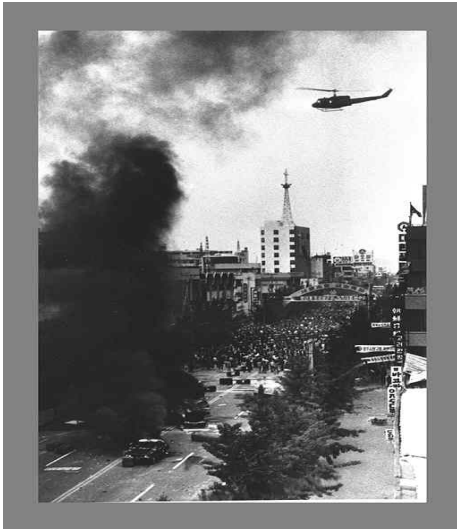
1) 정치인 김대중의 활용

5.18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광주시민과 가해자인 피고인들 모두에게 있어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우선 광주시민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지역은 18년 동안의 유신독재 기간을 통해 지역불균형에 따른 정치적 소외감과 경제적 침탈(즉, 인사정책의 심한 불균형과 중공업 우선 정책에 의한 농촌경제의 근간 붕괴에 따른 노동력 상실·저곡가 정책 등)로 고통받아 왔다. 이들에게 유신독재의 붕괴는 그동안 열망해 온 민주화의 도래로 받아들여졌으며, 고통만큼이나 상대적으로 그 바램과 기대는 클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동안 소외와 핍박의 고통 속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지도자를 갈망해 온 호남인들에게, 김대중은 그가 당시 유신체제에 의해 박해를 받아 온 이유만으로 호남인들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정서적 동질성을 가지게 되었다. 때문에 5.17계엄확대 조치와 함께 김대중의 구속은 광주시민에게 민주화의 좌절과 다름없었고, 특히 5월 21일에 발표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는, 광주의 상황과는 터무니없게 조작된 사실

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반면, 피고인들은 12.12 군사반란을 통해 정권찬탈 의욕을 가시화하고 있던 자신들의 입장에서 김대중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가장 위협적 정적이 아닐 수 없었다. 동시에 김대중의 지지 기반이 호남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국가 권력을 강점할 경우 가장 심한 반발이 예상되는 지역이 호남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들은 김대중을 예비검속으로 구속시킨 후, 5.18 사건의 배후조종으로 조작하기 시작했다. 정적을 제거함과 동시에 예상되는 호남인들의 반발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사전에 명분을 만들었던 것이었다.



당시 합동수사본부의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핵심 내용은, "간첩 김대중으로 부터 사주를 받고 광주지역 불순분자들이 선동하여 일으킨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한 내란·폭동"이었다. 조작된 공소사실은 김대중에게 정동년이 거사자금을 받아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켰으며, 학원소요사태를 민중봉기로 유도·발전시켰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광주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전인 5월 17일 예비검속에 의해 연행되었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과 5.18 사건은 직접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금남로

하늘의 헬기

5월 21일, 공수부대가 금남로와 전대 앞 그리고 조선대 등에서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총격을 가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 갔고, 시내 병원마다 부상자들이 피가 부족해 아우성을 치고 있는 바로 그 날 저녁 텔레비전에 생중계 된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내용은 고립무원의 도시가 되어버린 광주시민에게 엄청난 배반감과 분노로 작용하게 되었다.

피해자인 광주시민과 가해자인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보는 5.18 사건과 김대중의 관련은 다음과 같다. 광주시민들은 정치정서적 바램의 수준이었고, 피고인들의 경우 1980년 일련의 내란 과정에서 최정점에 해당하는 5.18과 김대중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조작을 통해 자신들의 국가권력 찬탈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바로 이 점이 광주학살이 사전에 계획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라 아니할 수 없다.



한마음이 되어 시민군의 식사를 지원하는 광주의 시민들

2)광주학살의 진상 은폐

광주시민들에게 들썩워진 '무력으로 국가를 전복하려는 내란이자 폭동'이라는 누명은 결국 그들에게 되돌려 졌다. 5.18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기까지의 16년 동안 광주는 그 누명과 왜곡, 그리고 일방적 오해와 편견 속에서 몸부림쳐 왔다. 이 땅의 모든 귀는 권력에 의해 닫혀져 있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져 있었다. 법과 제도는 한발 앞서 광주를 신군부의 잣대로 심판하여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해 왔다.

그동안 5.18 사건은 북한의 사주를 받은 불순분자에 의한 '내란과 폭동'으로, 다시 '광주사태'로, 계엄군과 광주시민 모두가 잘못했다는 양시양비론에 의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현 정부의 1993년 5.13 담화에 의해 민주화 역정의 우뚝 선 봉우리로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그 성격과 명칭이 끊임없이 변해 왔다. 망월동 5.18 묘역의 발자취 또한 5.18의 지난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다.

1981년 처음으로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모여 추모제를 지내다가 추모제를 주관했던 사람이 구속되기도 했고, 해마다 전국의 전투경찰을 광주로 불러들여 망월동을 애워 싸고 추모 발길을 가로 막았다. 관련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사찰을 계속했고, 심지어 정부 관료가 광주에 내려오면 반드시 관련 피해자들은 연금되거나 강제로 차에 태워져 제주도와 강원도 등 전국 각지에 실어다 놓아 버렸다.

그러나 그 16년 세월동안 오직 광주는 광주의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명예를 회복하고, 민족사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민주일념으로 싸울 수 밖에 없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시민항쟁의 마지막 보루였던 도청이 시민들의 피로 물든 채 진압된 후 광주는 5.18 사건보다 더 가혹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대학교수·성직자·원로 변호사·교사·학생 등 지식과 양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상무대 영창

과 보안대 지하실에서 몽둥이질과 발길질에 신음하여 그들이 강요하는 날조된 사실에 엄청난 자괴감을 느끼면서 서명을 해야 했다.

5.18 사건이 광주를 통해 정적을 제거하고, 사회혼란과 북한의 남침 위협이라는 명분을 제공 받아 피고인들의 정권찬탈 음모를 실현시키는 데 정점의 수단이었다면, 이 5.18사건을 조작했던 과정은 1980년 일련의 내란목적의 반인륜적 범죄를 은폐하고, 마침내 이 땅의 모든 양심과 지성에 족쇄를 채우는 수단이었다. 연일 언론에서는 광주사태의 모든 원인이 북한의 사주를 받은 불순분자들이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공공시설을 파괴하고, 약탈행위를 일삼은 폭동이었다며 떠들었고, 한 집 건너 한 집 마다 공수부대의 총칼에 살상된 상흔으로 광주를 내몰았던 그 책 임자는 날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내세우며 자신의 범죄행위를 가리우고 있는 모습을 지켜 보아야 했다. 이렇게 16년의 세월 끝에 국민적 요구와 투쟁으로 만들어진 이 재판에서 1980년 이 땅의 역사를 오욕과 암울을 씻어 내지 못한다면, 그 불행했던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 되고야 말 것이다.

4. 5.18 민중항쟁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여러 가지

1. 5·18 민주화 항쟁은 왜 일어났을까?
2. 1980년 5월, 당시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들은 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었을까.
3. 전국의 수많은 도시 중 왜 광주에서 가장 크게 반발하는 시위가 일어났을까?
4. 5·18 광주민중항쟁의 주체세력은 누구일까?
5. 5·18 당시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광주 무력 진압에 대하여 미국은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생각해 봅시다.
6. 1980년 5월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그 열기를 더해 가는 동안 다른 지역에서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폭도들의 만행'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때 공정한 언론이라면 어떻게 방송했어야 할까?
7. 1980년 5월 당시 사건의 현장엔 많은 광주의 청소년들이 함께 하고 있었다. 그 때 그 곳에서 내가 광주의 청소년이었다면 어떻게 하였을까?
8. 항쟁 기간에 범죄나 소요가 없었고 자치적으로 도시를 운영했던 경험을 가진 '시민자치'와 나아가 '자치공동체'로 살았던 것은 어느 나라의 항쟁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예다. 그 가치는 무엇일까?
9. 80년 당시의 (군사)재판과 1996년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재판은 '죄'(5·18 수괴 내란죄)과 내용이 같음에도 피의자(피고)는 다른 상황입니다. 이를 비교하여 생각해 보자.

내 발로 걸어온 역사의 현장



5.18 묘역에서 내가 느낀 것은



나의 의문점, 돌아가서 더 알아보고 싶은 것들

그들의 넋을 위로하다, 노근리



3년 전 편지의 비약을 반성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미국의 또 다른 면을 파헤친 지난 10년간의 취재 보고서..하지만 첫번째 편지의 증거자료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 오연호 기자의 마음은 <노근리 그 후> 곳곳에서 엿보인다. 총 4부로 엮어진 <노근리 그 후>의 1부 '노근리의 진실'편에도 그가 1994년 6월 최초로 노근리를 현장 검증하고 『말』 7월 호에 썼던 옛기사 전문을 그대로 실었다. 아무도 알지 못한 채 묻혀 버린 그 기막힌 이야기를 객관적인 기사로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기고 싶은 초심으로 쓴 기사였다. 5년 전, 『말』과 『한겨레』에 실린 노근리 학살 기사를 못 본 척 했던 우리의 주류 언론들이 노근리를 하나의 상품으

로 만들고 있는 요즘, 그의 기사를 읽으면 끓는 피가 느껴진다.

책 소개 : 오연호 <노근리 그 후>, 월간 말

1.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이란?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노근리의 철교 밑 터널 속칭 쌍굴다리 속에 피신하고 있던 인근 마을 주민 수백 명을 향하여 미군들이 무차별 사격을 가하여 300여 명이 살해되었다.

1950년 7월25일 영동군 영동읍 임계리와 주곡리에 지프를 타고 나타난 2명의 미군과 한국경찰관 1명은 주민들에게 급히 집을 꾸릴 것을 지시했다.

500여명의 주민은 『인민군들이 몰려오고 있으니 대구와 부산으로 피신시켜 주겠다』는 미군의 말을 믿고 그들의 인솔 하에 서울_부산 국도를 따라 도보로 피란길에 올랐다.

『25일 밤 하기리 근처에 이르렀을 때 미군들은 주민들 을 거칠게 길 아래로 끌어내리며 숙영할 것을 명령했다』며 『심상치 않은 미군의 태도에 겁에 질린 주민들은 뜬눈으로 날밤을 샀지만 다음날 미군들은 자취를 감춰버렸다』고 전했다.

26일 아침 인솔자를 잃은 주민들은 스스로 피란길에 올랐다. 미군이 다시 나타난 것은 이날 정오께. 노근리 철길을 지나고 있을 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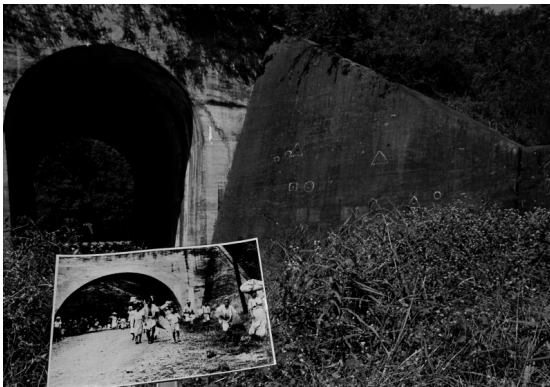


그림1 노근리 철교 피신처

『갑자기 나타난 4,5명의 미군이 피난행렬을 막아서면서 어디론가 무전을 하더군요. 미군들이 긴급히 철수 하더니 곧바로 미군전투기가 날아와 기관총을 쏘았습니다. 현장은 바로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공중에서의 기총소사가 끝나자 이번에는 길 양쪽에서 총탄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피란민 중 상당수가

그대로 철로위에 쓰러졌다. 양씨는 『나머지 주민은 미군의 위협속에 철도 밑 굴다리로 대피했다』며 『곧이어 굴다리 양쪽 입구에서 또다시 기총소사가 시작됐다』고 끔찍했던 순간을 되새겼다.

미군들은 굴다리 인근 야산에 기관단총을 걸어놓고 터널 안쪽은 물론이고 대피하기 위해 뛰쳐나온 피란민들에게 무차별로 총탄을 퍼부었다. 간신히 살아남은 주민들은 굴다리와 근처 수로(水路)에 몸을 숨긴 채 지냈다. 양씨는 『간간이 날아오는 총탄을 피해 시신을 뒤집어쓰고 피가 섞여 굴다리 안으로 흘러드는 시냇물을 유일한 식량으로 삼으며 버텼다』고 증언했다.

1999년 9월 미국 AP통신은 당시 미군은 노근리 부근에서 발견되는 민간인을 적으로 간주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이 명령에 따라 학살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하였다. AP 통신의 보도는 비밀해제된 당시 군 작전명령 중에서 '그들(피난민



그림2 철교 벽면 탄환자국

들)을 적군으로 대하라'라는 명령의 원문(原文), 미군 제1기갑사단과 미군 육군 25사단 사령부의 명령서 등 미군의 공식문건 2건과 참전미군 병사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 사건은 국내외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 사건이 외부에 처음 드러난 것은 1960년 민주당 정권 때 유족들이 미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면서였다.

당시 미군측은 소청을 기각하였고, 이 사건

은 그대로 역사의 미궁 속에 묻힌 것처럼 보였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양민학살이 자행된 충북 영동군 노근리 경부선 철도 밑 굴다리(노근터널).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기관총 난사자국이 터널 벽면에 선연히 남아 당시의 참상을 생생히 증언해주고 있다. 행하니 뚫린 비좁은 공간에서 피란민들이 당시 얼마나 처절한 참상을 겪었는지를 짐작케 한다. 질린 주민들은 뜯눈으로 날밤을 샐지만 다음날 미군들은 자취를 감춰버렸다』고 전했다.

29일 미군이 인민군에 밀려 퇴각한 뒤 주민들은 비로소 굴다리를 나올 수 있었지만 피란길에 올랐던 500여명의 생존자 중 살아남은 사람은 불과 수십명에 지나지 않았다.

노근리 양민학살은 적과의 교전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민군이 사건현장에 진격해 오기 전 미군들이 우리 피난민들에 대해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감행한 살상 행위라고 강조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작전을 수행한 미 제1기병사단의 사단사와 일본 육전사연 구보 급회가 발간한 <한국전쟁>, 북한쪽의 <조선인민보> 등 각종 자료에 따르면 7월 29일 오후에야 인민군이 노근리 사건 현장까지 진격한 것으로 돼있어 그 이전까지 사건 현장에서 미군과 인민군의 전투행위는 없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또 확인된 사상자 1백18명 가운데 청·장년층 남자는 불과 21명뿐이고 97명은 노인들과 부녀자 및 어린이들인 점으로 보더라도 전투중의 오인사살로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존자들은 “터널 안으로 치료를 해주러 온 미군 위생병이 ‘대전에서 피난민을 가장한 인민군에게 우리 미군이 엄청나게 당했다. 따라서 의심나는 피난민은 모두 죽이라는 상부의 엄명이 내려졌다’고 말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각종 전사에 따르면 “인민군이 민간인 복장을 하고 미군 방어선을 지났다가 옷 속에 감춘 총으로 뒤에서 미군을 공격해 피난민 통제강화와 민간인에 대한 검색을 강화했다”고 적고 있다.

2. 노근리 사건의 의의


노근리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노근리사건 당시 눈을 잃고, 코를 다치고, 또 고아로 오랜 세월 불면의 세월을 살아야 했던 피해자들이 살아있으니 현재의 사건이다. 또 미국이 노근리사건을 범치국가답지 않게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눈가림으로 처리한지라 향후에 한미관계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미래의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지난 40여 년 동안 진상규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정확한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노근리사건은 미국정부가 생각하듯이 종식된 사건이 결코 아니다. 분명 '노근리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 2월 1일, 영국 BBC는 1년 동안의 취재 끝에 미 국방부의 조사보고서가 영터리 보고서였음을 밝힌 다큐멘타리를 방송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미국의 유명 대학인 미시건 대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노근리사건에 대해 공부하고 난 후 미국 정부의 진상조사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자 캠퍼스에서 서명작업을 벌여 부시 대통령에게 노근리사건에 대한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보낸 일도 있었다. 그리고 지난 8월초에는 한국전쟁 때 참전했던 한 참전용사로 부터 노근리사건을 자행한 자신의 조국 미국이 부끄럽다며 노근리사건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생명을 되살릴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충분한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격려 엽서도 받았다.

그러나 정작 국내의 많은 언론들과 국민들에게 노근리가 잊혀져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다. 인권회복과 역사의 진실을 지켜내기 위한 노근리 피해자들의 힘들고 외로운 투쟁에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의 눈길을 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호소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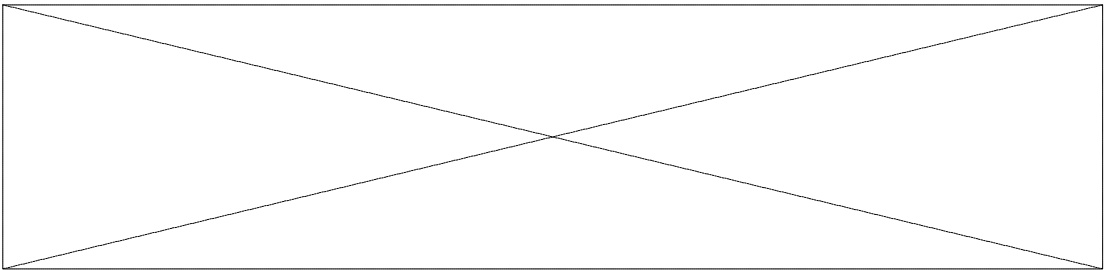


내 발로 걸어온 역사의 현장

 노근리에서 내가 느낀 것은

 나의 의문점, 돌아가서 더 알아보고 싶은 것들

우리가 지켜야 할 평화의 땅, 평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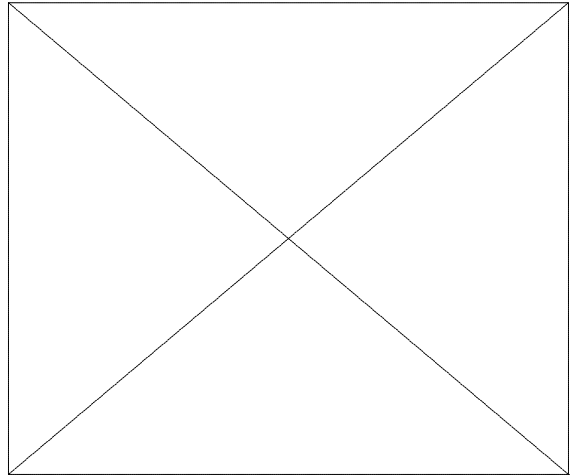


평화 축제 "총을 내려라!"는 5월 29일(토)부터 다음날까지
무박2일 동안 평택 일원에서 열립니다.
5·29 평택의 하늘에서 만나요, 평화의 새가 되어
당신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1. 평택미군기지 왜 반대하는가?

평택의 자유를 위해 연대하자. 이미 수십 년 동안 군사기지 확장으로 삶의 터전인 토지를 빼앗기고 추방당한 평택시민들의 고통도 반복되고 확대 재생산될 운명이다. 독일과 일본 다음으로 많은 해외주둔 미군이 배치돼 있는 한국. 지난달인 3월 초부터 미군은 경기도 평택에서 미군 해병대 8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프리덤 배너'로 불리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였다. 미군 해병대의 전시 대비 훈련으로 예전에는 한반도의 동남쪽에 위치한 포항과 진해에서 실시되던 것이 이번에 북한과 가까운 평택에서 실시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점증하는 전쟁위험을 다시 확인한다. 이것이 우리가 평택에 주목하는 첫 번째 이유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최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대부분의 미군을 평택에 집결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것은 미국의 군사전술이 특히 북한을 겨냥해 공격적으로 전환한 것에 따른 변화다. 하지만 미군기지 평택 이전의 파괴적인 위험은 거기에 그치지 않는데, 왜냐하면 대미종속적인 한국 정부가 미군 기지를 위한 토지를 강제수용



할 경우 주민들은 자신의 생존/생활의 터전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평택에 주목하는 두 번째 이유다. 기지확장 계획은 실제로 평택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있고, 이미 평택시민들은 대책위를 꾸리고 몇 달째 야외에서 기지확장계획에 반대하는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크고 작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평택시민들은 왜 그토록 반발하는가? 근대 평택의 역사는 외국 군대의 기지 확장이 주민들을 삶의 터전인 토지로부터 추방해온 역사였다. 그 역사는 멀게는 2차 세계전쟁을 벌인 일본이 '노력동원'을 통해 군사 기지 30~40만평을 건설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뒤 미군은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을 거쳐 휴전 이후까지 계속 기지를 넓혀왔다. 이미 수십년 동안 군사기지 확장으로 삶의 터전인 토지를 빼앗기고 추방당한 평택시민들의 고통이 이제 다시 반복되고 확대재생산될 운명에 놓여있는 것이다.

<529반전평화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평택시에 미국의 군사기지가 확장·집결하



는 것에 반대하는 한국 민중들의 조직이다. 우리에게 5월 29일은 평택 시민들의 즐기찬 기지반환운동에 전국적인 연대의 손길을 본격적으로 내밀기 시작하는 날이다. 따라서 우리가 저항의 방식으로 선택한 축제라는 형식 자체는 부차적이다. 그러나 부차적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문화적 저항의 표현은 반전운동·평화운동에 새 날개를 달아보자는 뜻이고, 성별·출신·

직업을 떠나 반전 세력이 폭넓게 결집해보자는 제안을 또한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미국의 군사적 억압의 파괴적인 영향이 민중을 빈곤과 파산, 질병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결코 감상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평화를 도덕적이거나 감상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평화가 짓밟히는 구체적인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투쟁에 연대하고 평화와 자유의 불을 지피는 일(과정) 자체를 평화라고 이해한다. 평택의 자유를 위한 연대를 호소한다. (문만식/ 529반전평화문화축제조직위원회)

미리 가 보는 평택의 역사

오는 2007년까지 용산 미군기지를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용산 미군기지가 위치한 90만평의 드넓은 공간에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대규모 공원이 조성된다고들 야단이다. 수도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던 용산 미군기지를 되찾으면서 '민족의 자존심'이 회복되었다고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용산 주민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평택시민들에게 이전되고, 동북아시아로 진출하려는 미 군사주의 전략이 관철될 것일 따름이다.

지난 1월 17일 제6차 미래동맹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미국의 바람대로 평택의 땅 312만평을 미군 부지용으로 공여하기로 합의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2002년 체결된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미군기지 주변의 땅 74만평을 미군 측에 공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용산 미군기지 이전 결정은 평택주민들에게 그야말로 앞친 데 덮친 격이다. 이러한 결정에 따르면 현재 460만 평이 넘는 땅에서 12,000여 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던 평택에는 3만 6천여 명의 미군과 1천만 평의 미군부대가 들어설 전망이다. 이는 1억 평에 이르는 평택 땅의 10%를 미군기지가 차지하고, 평택 인구의 10%가 미군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50여전 전 한국 전쟁 당시 미군기지가 세워지는 바람에 변변한 보상금도 받지

못한 채 주거지를 빼앗겼던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평택시민들은, 50년이 지난 지금 '미군기 평택 총집결계획 즉각 파기'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평택시민들은 수십 년 동안 미공군기 이착륙에 의한 소음, 진동으로 고막을 상실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60년대 평택에 미군기지가 확산되면서 미군들은 수질, 토양, 대기를 오염시키고, 강도/강간/살인을 저지르는 등 평택시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평택 시민들은 '빨갱이'로 내몰릴까봐 그저 가슴앓이 삼아 고통을 품고 살아야했으며, 한국과 미국 정부에 응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 경우에도 별다른 인정이나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실 '미군기지 총집결계획'은 비단 평택시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평택을 기지로 선택한 이유는 한강 이남에 위치한 평택이 용산과 달리 북한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나 있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 시에 자국군의 피해 염려가 줄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동을 견제하면서,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를 침략하려는 기점으로 평택을 택한 것이다.

아시아 민중과 손을 잡고 "총을 내려라" 외치며 평화의 새를 날릴 때이다.

(이진영 / 인권운동사랑방)

내 발로 걸어온 역사의 현장



평택에서 내가 느낀 것은



나의 의문점, 돌아가서 더 알아보고 싶은 것들

발자국 따라, 내 마음도 자라고...



고되고 지친 일정이지만
사랑하는 내 나라, 뜨거운 역사의 현장을
나의 두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행복한 고달픔이 아닐까..

길 위에서 함께 부르는 노래

가자고 가는 길은 진펄도 나무라지 않고
가기싫어 가는 길은 큰길도 타발이더라
마음먹고 가는 길은 험한 령도 단숨이지만
뉘라해서 가는 길은 신끈부터 풀리더라

헐하게 걷고보면 쑥대밭만 남아있고
힘겨워도 헤친 길은 자욱마다 꽃이더라
자기다운 길로 가면 행복이 마중오건만
중도에서 돌아서면 인생도 막바지더라

- 염무봉 시, 큰들 곡 <가는 길>

길 찾아 떠나네, 이동경로 안내지도



세상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슴으로 강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것'을 따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무엇을 가져다줄 수 있는가 하는 것보다
그 일을 하는 자체가 행복한가를 살펴야 한다는 거죠..

한비아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바퀴 반> -

